

전남대·조선대·광주교육대·목포대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국내 75개 대학에 2년 간 700억원 지원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교육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4개 대학이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일 광주교육대에 따르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사업에 선정된 교원양성대학 중 최고금액인 4억 5000만원(역대 최고액)을 받게됐다.

전형선진화(전형 간소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인 ▲풍향아람맺기(대학방문) ▲꿈찾사(소외지역 고교방문) ▲교사연수지원 등 다양한 고교-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광주교육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입학전형 운영의 선진화 및 공교육 지원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올해 역시 학생부종합전형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

이다.

전남대와 조선대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정돼 13년 연속 선정의 기록을 세웠다.

조선대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된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13년 연속 선정'을 기록했다.

조선대는 공교육 기반 전형 설계 및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준비가 가능한 전형을 통해 입학전형 내실화에 기여했다.

또 고른기회 전형 확대, 저소득층학생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 도서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육부로부터 11억 9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선대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함께 걷는 진로, 책에서 찾는 꿈, CU입학설명회 및 모의면접, 교수가 들려주는 전공 이야기, CU전공체험, CU미래전공설계, 찾아가는 상담가, 찾아가는 동아리 지원, 고교 동아리 지원, CU모의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교사대상으로는 찾아가는 CU진학교사 입학설명회, CU교사연수, CU창의수학 교육과정 교사 교사연수를 진행하며, 학부모대상으로 입학설명회 및 입학컨설팅, 호남지역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 등 중학생 대상으로는 함께 걷는 중학교 진로 등 다양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대는 올해 신규로 신청해 전남지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목포대는 대입 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대입 전형 정보제공과 단순화, 고교-대학 연계 활동 전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목포대는 2020년에 '표유형' 최다지원금인 4억원을 받게 됐다. 2년간(1+1) 8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전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교육과정의 충실한 고교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활동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강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지역균형 관련 전형 운영 등을 평가해 총 75개 대학을 선정했다. 사업기간은 2년(1+1)이며, 2020년 전체 사업예산은 지난해 559억에서 증액된 약 700억원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한다. 광주대는 1일 학교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광주 남구와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전남대기술지주회사,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이나 공공·민간 기관이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다.

전남대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한중훈)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 기술지주회사로서 주관기관에 선정, 1차로 올해 15개 지역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국내 창업 인프라와 민간영역의 투자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남대기술지주회사는 광주연구개발특구내 기업이나 연구소 기업 지원은 물론 2개의 대학창업펀드를 결성해 초기창업기업에 직접투자 하는 등 광주·전남지역 창업 생태계를 선도해 왔다. 한중훈 대표이사는 "국내·외 창업지원 인프라의 유기적 연계와 전주기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창업교육센터, 멘토링·현장학습 통해 동아리 지원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 창업가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올해도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강대 창업교육센터(센터장 박경우)는 '2020년 동강대학교 창업 동아리'를 모집하고 준비된 창업가형 인재 육성에 나선다. 동강대는 지난 2015년부터 '창업 아카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첫 해 11개 팀, 2016년 12개 팀, 2017년 6개 팀, 2018년 8개 팀, 2019년 9개 팀 등 50여 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했다.

창업동아리는 기술이나 지식·서비스 창

업에 관심 있는 동강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3~8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동아리는 아이템 개발비와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예비 CEO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현장 견학 등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특히 미래형 창의융합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실에서 3D 프린팅 관련 기술도 익히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도 받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말 호남의병장 교육용 역사자료 발간

광주시교육청, 초·중·고·특수학교·공공도서관에 배부

황광우 작가 집필

광주교육청이 한말 호남의병장을 다룬 의미있는 교육용 역사자료를 발간했다.

<사진>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정책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한말 호남의병장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를 발간해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공공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지난해 '의향 광주 위인 열전' 첫 발간사업에 이은 2탄이다. 근현대사의 어려운 시기마다 자신을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몸 바쳐준 지역의 숨은 위인을 발굴해 의향(義鄕) 광주의 역사적 뿌리를 밝히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발간한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1970~198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시인 김남주,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광주 항쟁 최후의 수배자 윤환봉, 극작가 박효선 등 4명의 인물을 담았다.

'나는 왜 이제야 아는가'에서는 1896~1909년 활동한 호남의병장들 가운데 호남 성리학의 기동인 송사 기우만(노사 기정진의 손자)과 호남의병 운동의 실전적 주역인 성재 기삼연을 비롯, 안규홍, 심남일, 양진여, 전해산, 조경환, 김태원, 양희일, 고광순 등 10인의 삶을 탐구했다.

집필작업을 맡은 황광우 작가는 "광주의 의향, 민주화 성지라 부르지만 정작 '왜 의향인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



는데 윤사 여창현의 '윤사유교'를 통해 한말 호남의병 운동의 주역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배움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역사교과서에는 한말 의병 운동의 거두로 최익현, 유인석, 평민 의병장 신돌석의 이름만이 등장하는데 한말 의병운동의 역사에 '전남'이 통째로 삭제된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한말 의병운동에서 호남 의병이 60%에 달하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말 호남의병운동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인식할 때 항일독립운동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광주와 호남이 갖는 역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배치 기준·근무여건

전남교육청,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한다

전남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육공무직 배치 기준과 근무여건을 공립학교 수준으로 개선해 이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 31일 전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무행정사와 행정사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사립학교 교무행정사와 행정사무원의 정원 배치 기준을 공립 기준으로 개선·보완해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하는 한편 이들의 사기를 진작해 교육공동체의 일체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사립 행정사무원은

공립 공무직 배치 기준을 적용해 8학급 이상 중학교에 1명, 23학급 이하 고등학교에 1명, 24학급 이상 고교에 각각 2명을 배치한다. 또 교무행정사는 1학교에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부족분을 5년간 지원해 공무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태문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번에 수립한 사학 교무행정사와 행정사무원 지원계획은 교육감 공약사업인 학생중심 교실 개혁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Classical

Mediterranean Sea